

8 인터뷰-경제전문가 김동환 동문(정치외교학 86)



김동환 동문은 자신이 다양한 직업을 거쳐오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를 '경제적 자유'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

(사진=김동환 동문 제공)

“부자는 되는 게 좋습니다”

서세종 기자 sejong0362@khu.ac.kr

대화는 함께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임과 동시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우리신문은 각 분야에 진출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나 자신과 마주 보려 합니다. <삼프로TV>의 김동환 동문(정치외교학 86)을 만나 끊임없는 도전의 비결을 들어봤습니다. 그는 과거엔 금융회사 임원으로, 뉴욕의 사업가로, 현재는 방송인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
여의도 빌딩 숲 사이를 헤쳐 김동환 동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. 김 동문의 사무실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. 김 동문은 현재 대중들에게 <삼프로TV>의 진행자, 김프로로 가장 잘 알려졌습니다. 200만 명을 웃도는 구독자를 보유한 <삼프로TV>는 주식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채널입니다.

다양한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출연하며 증권과 경제에 관련된 콘텐츠가 주를 이룹니다. 지난 20대 대선 때는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김 동문은 MBC 라디오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재치 있는 입담을 가졌습니다.

대학교 1학년에 시작한 첫 사업

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김 동문은 “그때 집안이 되게 어려웠다”고 말했습니다. “근데 아르바이트는 하기 싫었다”며 “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 최초의 사업은 1학년 겨울 방학 때 시작됐다”며 당시 일화를 꺼냈습니다. 학력고사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김 동문은 “학력고사를 보면 답안지가 있다”며 “시험이 끝나면 교문 앞에서 500원을 받고 팔았다”고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. 그는 “복사집 아저씨한테 ‘팔아서 값는다’라고 말하고 답안지를 한 부 사서 100부를 복사했다”며

“그래서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다른 곳은 신문 종이로 돼있으니까, 우리 것만 샀다”고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. “86년도 말에 총 합해서 한 10만 원 정도 번 것 같다”며 “그런 생각을 누가 생각했겠냐”고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

뉴욕의 신발 상인

김 동문은 뉴욕에서 신발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. 당시 김 동문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리셀 신발들을 취급했습니다. 김 동문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“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”며 “사업 때문에 마약 딜러, 강패, 건달, 하층민들 뭐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”고 운을 뗐습니다. 김 동문은 사업을 위해 할렘에 있던 큰 신발 가게의 매니저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.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한 매니저로부터

나이키 신발 세트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. 하지만 거래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달라는 매니저의 말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. 김 동문은 “(할렘에서) 잘 못 하면 총 맞는다”며 “본인이면 할렘에 3만 볼 현금으로 들고 갈 수 있어요?”고 물었습니다. 이어 “난 보디가드를 데리고 갔다”며 “긴장을 해서 그 추운 겨울날 집에 돌아왔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버렸다”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.

똑똑한 투자자를 만드는 <삼프로TV>

김 동문이 몇 년 전 시작한 <삼프로TV>는 어느덧 구독자 수 200만을 넘겼습니다. 김 동문은 <삼프로TV>의 목표가 “Smart Investor Building, 똑똑한 투자자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”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그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. “2025년까지 글로벌 1,500만 투자자들이

<삼프로TV>를 구독하게 하는 것”이라며 “투자자들을 위한 아주 최적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”고 미래 계획을 밝혔습니다.

도전의 비결은 ‘경제적 자유’

김 동문은 자신이 다양한 직업을 거쳐오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를 ‘경제적 자유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그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그는 “(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) 바뀐 게 있다면 계획이 훨씬 더 크고 구체화 됐다”며 “지금 생계를 어떻게 할까? 이런 고민은 계획이 아니고 대응”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김 동문은 “계획을 하면 주체가 돼서 나는 어떤 뜻 있는 일을 할까? 어떤 성취를 이룰까? 이런 차원 높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”며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할 필요성과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. 김 동문은 “부자가 되는 게 좋다”며 “대부분 불행은 빈곤해서 생긴다”고 말하지만, 맹목적인 부자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“부를 의미 있게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 쓸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.”